

장기기증 희망자의 의사결정 경험*

권 영 미** · 윤 은 자***

I. 서 론

장기기증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존율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장기기증은 말기 장기부전증 환자와 가족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유일한 치료방법이 되고 있다. 더욱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2002년 2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민간단체와 각 병원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던 장기기증을 국가관리체제인 국립장기기증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에서 장기기증 신청자와 수혜대상자, 뇌사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움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 공여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KONOS(2002)에 의하면 장기기증 대기자 수가 2000년도 7,022명이었던 것이 2002년 6월 현재 9,680명으로 무려 38%가 증가하였다.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건수는 2000년도 1,144건, 2001년도 1,559건이었으며, 뇌사기증자는 2000년도 64명이었고, 2001년도는 52명이 있었다. 이처럼 장기 이식 대기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장기공여자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 장기 수혜 대상자들의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장기 공여자 중 뇌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로 극히 낮으며, 대부분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1년도에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가 6,082명으로 전체 장기 공여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OPTN, 2002)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연도별 뇌사 기증자수를 보면 1979년부터 1992년 이전까지 27명에 불과하였지만 점차 증가하여 1999년에는 162명으로 가장 많은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도에는 52명의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고 있다(KONOS, 2002). 이렇듯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저조한 이유는 뇌사자의 생존시 유언과 유족의 장기기증 결정에 의해서만 뇌사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생전에 장기기증의 의사를 구두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뜻에 따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하여 장기기증 신청자로 등록을 한다면 장기공여자의 부족 현상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의 뇌사인정률이 점

* 본 연구는 2000년도 경인여자대학 교내학술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조교수

***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투고일 2002년 11월 22일 심사외뢰일 2002년 11월 26일 심사완료일 2003년 5년 12월

차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자신이 뇌사로 판정될 경우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향이 고조되고 있다(Choi, Lee & Lee, 1988;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News, 1992; Yang, 1994). Kwon과 Yeun(2000)의 연구에서도 많은 일반인들이 장기이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Pike, Odell & Kahn, 1993; Liu, Lei & Qui, 1997; Sanner, 1998; Danielson, LaPee, Odland & Steffens, 1998).

선행연구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하려는 의향은 있어도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발견한다면 이들을 장기이식센터에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등록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장기 이식과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으며,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등록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초로 하여 잠재된 장기 공여자를 확고한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도록 이끄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기증을 희망한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결정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심리적 문제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을 발견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자료 속에서 발견된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들간의 관계를 통합하여 형성된 이론으로부터 일반인들의 장기 기증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지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계기가 바탕이 되어 장기기증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을 희망한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하고 있었던 사회심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2. 장기기증을 희망한 사람들은 그 사회심리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장기기증 희망자로 단체에 등록한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자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 맞는 참여자를 찾기 위해서 장기기증 운동을 펼치는 기관의 협조를 얻어 담당자에게 참여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의 1차 선별을 의뢰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주변 인물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별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연구에 참여할 뜻을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 면담을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11명이었으며, 남자가 4명, 여자가 7명, 기혼자가 6명, 종교인이 6명이었다. 학력은 고졸이상이며, 모두 사후기증과 화장을 신청하였다.

2. 자료수집

참여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면담 약속을 하였고,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면담 방식과 녹음기의 사용에 대해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었다. 면담 장소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정하였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면담을 하였다. 자료 수집은 일대일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20분에서 2시간 30분이었고, 면담횟수는 1-2회였다. 면담이 끝난 후 대상자의 비언어적 반응을 메모한 기록을 보면서 녹음한 내용을 듣고 다음 면담에 필요한 질문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후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다음 면담을 약속하였고, 참여자의 여건상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였고,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Glaser(1992, 1998)의 근거이론방법론에 근거하여 자료분석을 하였다.

근거이론방법론의 적용을 보편화하는데 기여한 Strauss와 Cobin(1990)의 분석단계는 수집된 정보나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코딩과정을 거쳐 현상을 발견하고 명명하고 범주화하면서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 즉 원인적 상황, 현상, 맥락, 매개요인, 작용/상호 작용 전략, 결과로 구성되는 모형을 구축해 간다. 이와 달리 Glaser(1992, 1998)의 분석방법은 우선 현장 속으로 들어가 연구문제를 확인하면서 자료수집 및 분석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며 개념을 생성한다. 계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표본 추출을 하는데 범주가 이론적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하면서 이론적 메모를 하고, 개념들을 분류한 후 마무리 단계인 글쓰기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연구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요 문제, 즉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Basic Social-Psychological Problem)를 찾아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Basic Social Progress)을 발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기증 희망자들의 공통적인 사회심리적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므로 Glaser의 근거이론 방법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방법의 분석단계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거이론에 의한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자 2인과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비교하는 과정을 1년에 걸쳐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의 타당도에 해당하는 연구의 진실성,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Sanderlowski, 1986)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첫 번째 대상자와의 면담은 가능한 광범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참여자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분석결과는 2차 면담에서 심층적 질문에 반영하여 의미를 재확인하였고, 다음 참여자에 대한 질문에도 반영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보다 높아진 이론적 민감성에 근거하여 면담을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본적인 사회 심리적 문제: 몸에 대한 집착

참여자들은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를 그다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관심 또한 적은 편이었다. 정보를 얻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대중매체를 통해서 장기기증에 관련된 기사나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겠지’ 하는 식의 관망적 태도와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며 장기기증에 대하여 관심이 없음을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진술 속에서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아우, 왜 이런걸 해요?”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무관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무관심은 피상적인 표현이었고, 면담이 진행될수록 몸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장기기증 희망자들이 장기기증을 결정하기 이전에 공유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는 ‘몸에 대한 집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과정: 삶의 의미를 찾는

본 연구에서 장기기증을 결정한 등록자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인 ‘몸에 대한 집착’을 다루어 나가는 핵심범주는 ‘삶의 의미를 찾는’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BSP)으로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서 참여자들이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는 자신을 옹아매고 있던 것을 스스로 풀어내어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은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되었다.

우선 주변 사람으로부터 장기 기증의 권유를 받았을 때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어 피하고 거부하게 되는 ‘꺼림’,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꺼리지만 장기를 기증했거나 또는 기증하려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보며 자신을 옹아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들여다 봄’,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벗어남’, 자기를 옹아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장기 기증 결정을 하게 되고,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을 한 후에 ‘재발견’하는 단계가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단계 1. 꺼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상되는 끔찍한 생각들로 인하여 장기를 기증하는 행위를 꺼리면서 육체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러한 ‘꺼림’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해치지 싫다는 거부감과 삶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났다.

많은 참여자들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살아서 장기를 빼간다’, ‘모든 장기를 다 빼간다’고 생각하며, ‘통증이 매우 심하다’, ‘몸을 해치는 일이다’, ‘몸이 나빠진다’라고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올바르지 않은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겨 장기기증을 꺼리고 있었다.

1) 두려움

참여자들은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장기 기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추측하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신체가 손상될 것이며,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기를 적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장기 기증을 기피하고 있었다.

“(장기 기증에 대해서) 듣고서 맨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죠. 신장 같은 거 때나 그러면 어떻하나하고 그랬는데 (걱정을 했는데)... 우선은 장기 기증 신청하면 무조건 다 적출해 간다고...(중략).. 골수 같은 거 기증하면 상당히 아프다, 뼈 가는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거(이야기)가 많으니까 무서운데.” (참여자 ㉔)

“너무 아프다는 소리도 많고 이 몸에 흉터도 남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꺼려지고..(중략)....장기기증에 대한 선입견을 못 깨고 막연히 좋은 일이나 나고 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움이 있고...., 장기 기증에 대한 막연한 무서운 것 같아요. 뭐 내 몸에서 이렇게 (장기)를 딱 다 빼 간다. 살아 생전에 빼간다는 거.... ‘장기를 빼서 괜히 언한테 쓰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많고, 갇히고 신장되고 다 되는 거니까 다 딱 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참여자 ㉕)

2) 애착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여자들은 삶과 죽음을 연결지어 생각하였다. 우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신체에 나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보면서 현재의 생활을 그대로 이끌어 가고 싶은 바람과 함께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욕구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평소애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죽음을 연상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신장 같은 거는 장기 이식하고 나면 이거 좀 이기적

인 생각이지 모르지만 제 몸에 이제 상처가 남고 제 하고 싶은 일이 그런 쪽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몸에 손을 대면은 좀 그러니까(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참여자 ㉔)

“사실 죽음이거나 이런 것들에는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으니까....살아 있을 때 오히려, 아마 더 가진 게 전진 많아져서 부끄러운 지도 모르겠어요. 그니까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애착을 갖는 게 삶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여자 ㉕)

연구 참여자들은 진술 속에서 장기 기증을 꺼리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경우를 표현하기보다는 일반인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장기 기증을 꺼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전통 사상인 유교에서 중시하는 덕목인 가정윤리, 다시 말해서 효(孝)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몸을 해치는 것이고, 이는 부모가 주신 육체를 함부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되므로 장기 기증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 이들이 공통된 인식이었다.

“우리 나이가 부모님한테 문, 신체(भाग) 수치부모)... 뭐 그게 있어 가지고 또 잘 그런 거(장기기증) 안 하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유교) 사상하고,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게(꺼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참여자 ㉔)

단계 2. 들여다 봄

두 번째 단계는 ‘들여다 봄’의 단계로 참여자는 장기 기증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집착을 보이면서 장기 기증을 꺼리지만 주변 사람의 진지한 설명을 듣게 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기, 미래의 삶을 그려보기, 타인의 삶에 관심 갖기, 그리고 타인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등을 하면서 자신을 통찰하는 단계이다.

1) 일상 생활을 살펴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인가 비어 있다는 느낌으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지를 발견하고는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인다.

“군대 갔다오니까 이제 나도 사ही인이 조금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제 뭐 하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도중에 이제 사ही인이 되면 더 여유가 없겠지?하는 생각이 들고, 아,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여자 ㉞)

“제가 쯤 너무 방탕하게 살지 않았나. 아주 못사는 거는 아니지만 또 그 분들 생활하시는 거라든가.. 그거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잘 사는 편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고 살았다 그전경 깨닫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㉟)

2) 흔들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관심이 쏠리자 장기 기증 등록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신부님, 선배 등 장기 기증 등록자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잘못된 지식으로 장기기증을 기피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자 닫혔던 마음이 열리면서 장기기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참여자는 장기를 기증하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서 하고 싶은 바람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착한 사람 보면 착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식으로 쯤 마음이 많이 동요했어...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좋은 일을 하는 그 분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런거(좋은 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죠.” (참여자 ㉞)

‘들여다 봄’의 중재적 상황은 장기 기증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는 상황이었다. 참여자들이 신뢰감을 갖고 있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진지한 설명을 들으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게 되고, 그들의 권유를 심사숙고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대중매체인 TV나 책, 잡지 등을 통해서 장기기증의 실체를 올바르게 보게된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정서적 안도감을 가지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70프로도 많이 그때 막 보이네요, 그것도 자극도 되고. 그대가지고 그런 거 이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저는 처음엔 무서웠는데 장기기증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선배가 설명을 해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무서움 없어지고 뭐 걱정할 거 없으니까.” (참여자 ㉞)

“교회소식이 있는 장지 같은 거 많이 읽거든요. ‘빛과 소금’이라는 장지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서 나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참여자 ㉟)

“나도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게 참 좋은 일이다’라는 인식이 박히더라고요. ...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감정이 변한 것 같아요. 사고도 바뀌게 하고...” (참여자 ㉟)

단계 3. 벗어남

세 번째 단계는 육신에 집착하도록 자신을 매어두고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해지는 ‘벗어남’이다. 이 단계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필연적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사후에 대한 미련과 애착은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으며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을 움아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로워진다.

1)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짐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을 장기기증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면서 발생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장기이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고 더불어 사라지게 되고 죽음을 인생의 당연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을 표현하였다.

“죽음.... 평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니까 자잘한 애착들이나 이런 거로부터 좀더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참여자 ㉟)

2) 몸의 집착에서 벗어남

죽음을 당연한 인생의 한 과정으로 인식함에 따라 참여자들은 사후에 온전하게 몸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집착이 사라지고 오히려 생존에 몸을 아끼고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선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 없

어지는 거니까..... 진짜 죽어서는 내 것 아니니까”(참여자 B), “필요 없고 소용이 없는 건데”(참여자 C)라는 진술로 사후에 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표현하였고, 일부 참여자는 “지금 제 몸에 제게 아닌데”(참여자 A, 참여자 E),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빌린 거다”(참여자 G)라며 육체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같이 많은 참여자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쉽게 벗어남을 알 수 있었다.

3) 관습에서 가벼워짐

많은 참여자들은 진술 속에서 공통적으로 유교적인 관습에 대해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장묘 제도와 제사는 걸치례적인 의례로 간주하여 이러한 제도를 전면 거부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사후에 화장을 원하고 있으며,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 속에 남아 오래도록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관습적인 의례라는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방법보다는 합리적이고 실리주의적인 방법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부모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인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부모도 흔쾌히 동의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가 장기기증을 하는 시점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굳이 부모에게 미리 알려 마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없다는 부모에 대한 배려가 더해져 참여자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단계 3의 과정을 거치면서 두려움, 몸에 대한 집착, 미련, 애착 등 자신을 움아매고 있던 것들을 풀어내자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결심하고 행동을 옮기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기억...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목심이 아니에요? 그니까 기억해달라 그런거, 아니 뭐 기억해 달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살아 있을 때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무덤이 있다고 해서 더 기억을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㉑)

단계 4. 재발견

네 번째 단계는 마음속에 담고 있던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 행동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달라진 주변 시선에 의해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인 ‘재발견’이다.

1) 자신에 대한 재발견

장기기증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달라진 타인의 시선 속에서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으로 행복을 느낌과 동시에 부담스럽고 쑥스러운 마음이 있음을 진술문에서 표현하였다.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제 만족감이 제일 컸죠. 그니까 제가 아 나도 이제 착한 일을 하고 사는구나... 이제 저도 그런 거에 향뿤 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참여 할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이제 만족할 수 있고, 그런데서.. 행복한 거죠.. 그냥 제 마음이야 뭐 달라진 건 없는데 남들이 다르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대 갖고 제가 쏘 그런데... 장기 기증을 했다 그러면 되게 딱 사냥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장기기증 행사같은 대박한 일 한 것처럼요,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회원들끼리도 얘기 하지만 장기기증 하고 양하고가 뭐 죽고 살고 그거를 걱정하는 일이 아닌데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느끼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참여자 ㉒)

단지 장기기증 의사를 표명한 것뿐인데도 대단한 일인 한 것처럼 여기는 타인들로 인하여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진술문에서 표현하고 있었다. 참여자가 장기기증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것과 유사하게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감은 실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장기기증을 권유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홍보를 하며 공여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참여자 C는 앞으로 장기 수혜 대상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일반인에게 한순간의 감동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수혜 대상자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나누어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여 장기 공여자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참여자 H는 장기 공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 직접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였다.

장기기증을 결정한 이후부터는 몸이 자신만을 위한 몸

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이전과는 달리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조심하며 아끼고 있었다. 술과 같이 몸에 해로운 것은 자제를 하며 운동이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장기기증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핑계 끝에 건강하기를 바라고 내 몸도 잘 돌 봐야 되겠네하는 생각을 했죠. 그 전에는(장기기증 하기 전에는) 비타면제니 이런 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디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괜찮다고 하는 약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먹어요. 그래서 비타면제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좋아지고 싶어요. 안 아프게 좋으니까.. 그렇게 보강하고 있어요.” (참여자 ㉑)

이러한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장기기증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서 장기를 기증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참여자 D는 진술하였다.

“나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중이라는 말이 뭐냐 그걸까 ... 어느 순간엔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내가 누군 상할 수 있고, 만약에 기증을 안 하면 누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될 때 어떤 생각이나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르게 될 것 같아요. 그런걸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하는게 아닐까...” (참여자 ㉒)

2) 주변에 대한 재발견

참여자들은 자신 뿐 아니라 가족, 타인, 환경 등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D는 낙태 등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더불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바뀐에 따라 삶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제가 갖고있는 어떤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아 이 사

람들은 이럴 것이다, 아프면 이럴 것이다 뭐 내지는 그런 것들,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기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깨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다 사람들 똑같다 라는 것들 더 오히려 느낄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들 다 같았을 만한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프면 대개 못 살거더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 작은 것들도 깨져요. 생활이라는 삶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사는 것들이 오히려 더 폭넓게 살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㉓)

그리고 참여자 B는 부모가 자신이 장기기증을 한 취지를 이해해줌으로써 부모자식간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하였다. 다른 참여자들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선택 동참하겠다는 가족에게서 자신이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고, 부모, 남편, 형제에 대한 믿음이 더 두터워졌음을 자랑스럽게 표현하였다.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등축증까지 받고도 언니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우연히 알게 됐더니 언니 랫, 그걸 하면 뭐 명이 단축된다더라, 니 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찍 죽는다, 너 미쳤나, 시신을 헌하게 손대면 큰일 난다드라, 집안 대대로 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니도 이제 어느 틈엔가 제가 이런 일(장기기증 홍보)을 하는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많이 발전하신 거죠. 이런 일을 하는 딸을 뵈었다는 걸 어느 틈엔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여기저기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런 게 많죠.” (참여자 ㉔)

IV. 논 의

본 연구결과 장기기증 희망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심리적 문제는 ‘몸에 대한 집착’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다루어 가는 핵심범주는 ‘삶의 의미를 찾음’이었다. ‘삶의 의미를 찾음’은 4단계, 즉 ‘꺼림’, ‘들여다 봄’, ‘벗어남’과 ‘재발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장기기증의 의사결정 경험을 다른 의사결정 경험과 비교해볼 때 의사결정자의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 의사결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에서 Jeong과 Kim(2000)는 사회적 인식, 모유수유의 당

위성의 정도에 따라 중심현상과 상호작용 전략에 달라진다고 하였고, Jette, Grover과 Keck(2003)은 정보수집과 종합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두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시 외적인 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음'이라는 과정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에 의한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Lee(2000)는 신장 공여자의 의사결정에서 핵심범주인 '주고싶은 마음'이 의료정보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어 공여자와 수혜자간의 친밀정도에 따라 주고 싶은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로부터 장기기증자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단계 1인 '꺼림'은 장기기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을 해치기 싫다는 거부감과 삶에 대한 애착으로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단계이다.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과 편견,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유교적 관습이 장기기증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는 뇌사자 장기기증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Ha 등(2001)에 의하면 뇌사자 장기기증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고, 유교적 관습에 의한 것이 그 다음이었다. 유교사상에서 가정이나 사회, 국가의 모든 제도나 규칙과 관행 등을 일컫는 예(禮)의 근간인 인(仁)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 윤리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유교사상은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와 Ha 등(2001)의 연구결과에서 유교사상이 장기기증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교사상의 원리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흐르게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서 죽음을 연상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으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단계 2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인생의 한 과정으로 인정하고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단계 3으로 접어들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을 연상하면서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죽음 자체보다 죽음으로부터 오는 공포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Hackett, 1971). 대부분 사람들은 생의 영속만을 염원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해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이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려 하지도 않는다(Kübler-Ross, 1969). 따라서 인간은 삶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사건인 죽음이 계획없이 찾아올 수 있음을 자각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살고 싶은 강한 욕구와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된다(Kim, 1999; Lee, 1998). 이는 단계 1인 '꺼림'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동시에 삶에 대한 애착이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죽음은 생명 과정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죽음을 삶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은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죽음을 전제로 한, 즉 죽음을 동반하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Chung et al., 1999). 공자는 삶이나 죽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이치라고 하였다(Kim, 1999). 이것은 곧 우리의 현실세계에 이미 전제되어 있듯이 삶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이 삶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곧 죽음을 내포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죽음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삶의 실상을 아는 것은 곧 영원히 사는 것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삶과 죽음처럼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요소들의 불가분리성에 대한 이해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동시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의 극복, 즉 두려움의 해소라는 문제는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며 내적 체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입장 또한 문화권마다 다양하여 미묘한 차이를 두고 죽음을 이해해 왔다(Kim et al., 1992). 서양에서는 죽음을 합리적·분석적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에 반하여 동양에서는 관조적·관념적 태도로 죽음을 이해하는데 공통적인 죽음관념은 죽어도 마음만은 불멸하고 사후존재가 지속된다는 영혼불멸론과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멸론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종교관과 무관하게 사후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단멸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참여자 I만 유일하게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영혼불멸론의 입장을 보였지만 육신은 본원적 요소인 흙으로 환원된다는 공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유용성을 더 고려하여 장기 기증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참여자들이 장기기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장기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였다. 신

피할 수 있는 주변 인물로부터 진지한 설명과 대중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으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희망하게 되었다. John, Coonan과 LeGrande(1997)도 장기기증에 대해 불확실하고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장기 기증의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 공여자의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장기기증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기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Glaser(1992, 1998)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심리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나가는지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장기기증을 희망하여 단체에 등록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자로서 총 11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일대일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고, 면담내용은 녹음한 뒤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자료수집과 동시에 면담내용을 계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기기증 희망자들의 주요 사회심리적 문제는 ‘몸에 대한 집착’이었으며, 이를 다루어 가는 핵심범주는 ‘삶의 의미를 찾음’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발견되었다. 사회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은 ‘꺼림’, ‘들여다 봄’, ‘벗어남’, 그리고 ‘재발견’의 4 단계로 나뉘어졌다. ‘꺼림’은 장기기증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기고, 반면에 삶에 대한 애착과 몸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 장기기증을 기피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들여다 봄’으로 주변 사람의 설명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실제적인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통찰하는 단계로 마음의 동요가 일기 시작한다. 그 다음은 ‘벗어남’ 단계로 죽음을 인생의 필연적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두려움, 사후에 대한 미련, 애착이 사라지게 되어 마음이 열리면서 활기분해지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장기기증을 결정하고 등록한 다음에는 ‘재발견’ 단계이다. 타인의 눈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 만족을 느끼며, 자

신의 몸, 가족, 타인,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다르게 인식하게 되면서 장기 공여자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몸에 대한 집착을 해결해 나가는 단계로서 장기 기증의 뜻은 있으나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잠재적인 장기 공여자를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도록 이끄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반인과 장기기증 희망자의 죽음관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Choi, U. S., Lee, Y. K., & Lee S. H. (1988). A Survey of Brain Death. *Sejong Medicine*, 5(2), 159-169.
- Chung, H. K., Kim, K. H., Yeun, E. J., Ryu, E. J., Yeum, S. K., Chung, Y. K., & Kwon, H. J. (1999). A Study on the Subjectivity about Death. *J Korean Acad Psychol Nurs*, 8(1), 5-16.
- Danielson, B. L., LaPree, A. J., Odland, M. D., & Steffens, E. K. (1998). Attitudes and Belief Concerning Organ Donation among Native Americans in the Upper Midwest. *J Transpl Coord*, 8(3), 153-156
- Glaser, B. G. (1992).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Glaser, B. G. (1998). *Doing grounded theory: Issues and discussions*.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Hackett, A. T. (1971). An understanding of death, *A Matter of Life and Death to Them of Deans' Council Seminar E.T.S.*, 54(1), 1-17.
- Ha, H. S., Hong, J. J., Kim, S. C., Lee, S. K., Song, M. K., & Han, D. J. (2001) A study of doctor's concern and attitude about cadaveric donation. *The Life*, 1, 22-27.
- Jeong, G. H. & Kim, S. J. (2000). The Pregnant Women's Decision-making Process about Their Infants Feeding Method. *J*

- Korean Women's Health Nurs Acad Society*, 30(1), 47-59.
- Jette, D. U., Glover, L., & Keck, C. P. (2003). A Qualitative study of clinical Decision Making in Recommending Discharge Placement From the Acute Care Setting. *Physical Therapy*, 83(3), 224-236.
- John, Y., Coonan, P. R., & LeGrande, M. E. (1997). Attitude of Korean-Americans in and around New York City Toward Organ Transplantation. *Transplant Proc*, 29, 3751-3752.
- Kübler-Ross (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Co.
- Kim, J. E. (1999). Koreans view of life and death. *The Chulhak-Ronchong*, 16, 109-138.
- Kim, S. H. et al. (1992). *What's Death?* Seoul : Chang Publishing Co.
- KONOS (2001). The Report of Brain Death Donor's Organ Donation 1979-2000.
- KONOS (2002). Data: Waiting list candidates.
- Kwon, Y. M. & Yeun, E. J. (2000). Subjectivity o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J Korean Acad Nurs*, 30(6), 1437-1455.
- Lee, E. (1998). *A study of spot-survey toward the attitude of hospic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of Korea, Leegsan.
- Lee, M. S. (2000). The Pattern of Decision Making a Living Kidney. *J Korean Acad Nurs*, 30(1), 47-59.
- Liu, Y., Lei, H., & Qui, F. (1997). Investigation of Attitudes towards Organ Transplantation in Young People in China. *Chin Med J*, 110(3), 210-215.
- OPTN (2002). *Donors recovered in the U.S. by donor type*.
- Pike, R. E., Odell, J. A., & Kahn, D. (1993). Public Attitude to Organ Donation in South Africa. *S Afr Med J*, 83(2), 91-94.
- Sanner, M. (1998). Giving and Taking to Whom and from Whom? People's Attitudes toward Transplantation of Organs and Tissue from Different Sources. *Clin Transplant*, 12(6), 530-537.
- Sanderlowski, M.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 Nurs Sci*, 8(3), 27-37.
- Strauss, A. & Cobin, J. (199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 overview. In Denzin, N. K., & Lincoln, Y. S.(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News. 1992. 9. 17.
- Yang, E. M. (1994). *Real analysis on brain death and organ dona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 Abstract -

The Experience of Decision Making to Donate Organs*

Kwon, Young-Mi** · Yeun, Eun-J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cess of experience toward decision making to donate organs. Method: Eleven subjects who registered at the Association for Organ Sharing in Korea were recruited.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tape-recordings, data was collected from Jun. 2001 to Feb. 2002 and the contents of these were analyzed by Glaser's grounded theory analysis method. Result: Basic Social-Psychological Problem(BSPP) of subjects were 'attachment to body' and the core theme, that is Basic Socialization Progress(BSP) wer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in Women's College Research Fund 2000.

**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discovered to 'find out what is the meaning of life'. Also it consisted of four steps: 1st 'hesitate', 2nd 'look into self', 3rd 'realize the tie up to self' and last 're-find the meaning of life'.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e Korean's Basic Socialization Progress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organ donation, so possible

development of promoting decision making is necessary strategies for people who is having his/her potential of organ donation in mind.

Key words : Organ donation, Decision making,
Experience